

교육청-지자체-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의 경계와 지원전환 방안

진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은정

왜 중간지원조직을 고민하는가?

정책의 지속성, 일관성 유지

-철학의 유지, 담당자, 관심

중복되는 교육사업들

-교육연수프로그램	-학교 밖체험-방과후 프로그램
-평가, 모니터링	-시설지원, 공간운영

왜 중간지원조직을 고민하는가?

교육지원청의 역할 확장보다 심화

- 교육지원청의 지역사업 연계 시작은?
(혁신학교, 방과후 마을학교,
마을교육생태계활성화 지원조례(2018))

협력 주체별 경계 세우기

교육지원청

- 교육전문성 및 제도 중심 역할
- 운영보다는 정책 기획, 조정 중심
- 장기적 임기제 장학직 등 확보로 컨트롤타워 역할

협력 주체별 경계 세우기

지자체

- 교육정책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지원사업 지속
- 교육 외적 조건(교통, 복지, 지역개발 등)과 교육사업의 연계 주도

협력 주체별 경계 세우기

중간지원조직

- 교육청,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협력, 조정, 중재 기능 집중
- 사업실행 및 운영 중심
- 조직 자율성, 독립성 유지 가능성 확보
(인사권 예산운영권 일부 등)

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

정례화된 협의모임

- 서로의 역할 공유와 이해
- 진안교육의 방향성 공유, 공감
- 집단지성의 힘을 통한 준비

함께 고민하고 만들고 참여하는 자생력이 필요

- 행정에 요구만해서는 지속성, 시의성, 유연성 어려움
- 조례, 예산, 인력, 역할 등은 함께 논의